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1. ② 2. ⑤ 3. ② 4. ④ 5. ① 6. ④ 7. ② 8. ⑤ 9. ⑤ 10. ③
 11. ② 12. ① 13. ③ 14. ⑤ 15. ① 16. ① 17. ⑤ 18. ③ 19. ② 20. ①
 21. ④ 22. ③ 23. ⑤ 24. ④ 25. ④ 26. ⑤ 27. ③ 28. ④ 29. ② 30. ⑤
 31. ⑤ 32. ③ 33. ④ 34. ④ 35. ④ 36. ③ 37. ⑤ 38. ③ 39. ④ 40. ①
 41. ① 42. ② 43. ① 44. ③ 45. ③

[1~3] 화법

[1~3]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만큼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자료를 인용한 까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양 성분 표시 순서를 변경한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강연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강연자가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강연자가 강연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제시된 강연 부분에서는 청중이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2. 듣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2문단에 의하면 ‘당류’는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된 것이 아니다. 2문단 중간 부분에 의무 표시 성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의무 표시 성분으로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1회 제공량’에서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 함량 표시 방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3문단을 보면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개정 전 표시 도안이므로 적절한 생각이다. ③ 3문단에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이전과 표시 위치가 달라진 데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④ 4문단에서 ‘열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개정 전과 비교해 보면 그 위치를 구분해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소비자들이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바꿨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강연에서 말한 내용을 추가 설명으로 요청하는 것은 강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일부 가공 식품’에 한하여 영양 정보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결정되는지는 강연 내용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2문단에서 의무적으로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들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 비타민이나 칼슘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지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대용량 제품은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두기로 했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⑤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4~7] 화법, 작문

[4~7]

4.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은 (가)의 1문단에서 토래 상담을 받으며 위안을 받은 적이 있고 이를 통해 상담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토래 상담 요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은 2문단의 공부방 봉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 마지막 문단에서 친구의 이야기와 고민을 경청,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과 ㉢은 (가)에서 찾을 수 없다.

5. 내용 조직 전략의 적절성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친구 관계로 힘든 시기에 토래 상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경험을 제시하면서 ‘토래 상담 요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지원 분야와 관련된 학업 계획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지원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④ 지원자의 포부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지원자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찾을 수 없다.

6. 면접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면접자는 자기소개서 3문단에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을 흥미롭게 읽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에서 면접자가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자 면접 대상자는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을 보면’이라고 말하면서 상담자의 태도

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A]의 질문과 답변은 각각 ㉞, ㉟와 연결된다. ‘또래 상담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지원 분야의 필요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답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제가 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말하고 있다. [C]의 질문과 답변은 각각 ㉠, ㉡와 연결된다. ‘상담 상황’을 제시하며 질문하고 있으며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신뢰와 친근감을 형성한 뒤 친구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상담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7.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나)에서 ‘면접 대상자’가 ‘면접자’와의 견해 차이가 드러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중간 부분에서 면접자가 ‘래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질문하자 면접 대상자가 ‘래포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③ 면접자가 ‘평소 또래 상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군요.’라고 반응하고 있다. 또한 ‘잘 알고 있네요.’라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다. ④ 면접자의 마지막 말에서 ‘신뢰와 친근감을 뜻하는 래포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상담의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군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면접 대상자의 직전 답변을 요약하며 재진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⑤ 면접의 도입부에서 면접자가 ‘긴장한 것 같은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8~10] 작문

8.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학생의 초고] 3문단을 보면 학생들이 시내버스 노선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의 신설이라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해결 방안의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비교하는 내용은 없다. ④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9.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에 들어갈 내용은 건의 주체, 즉 A 단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과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에서는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신설되면 학생들의 피로감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과 함께 교통 혼잡을 해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시내버스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없다. ②, ③ A 단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없다. ④ 건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없다.

10.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불편을 보여 주는 인터뷰 자료이다. (나)는 자가용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가)와 (나)를 활용하면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가용 이용률의 증가가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글의 논지와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불편을 드러내는 인터뷰이므로 문제의 실태를 보여 줄 수 있다. ② (나)는 시내버스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시내버스 기피 현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나)를 활용하여 자가용 이용률과 시내버스 이용률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다)는 다른 지역에서 학생 전용 급행 노선 운행이 실시되어 시내버스 통학 학생 비율이 전보다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자가용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가)는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없는 지역의 학생이 겪는 불편이고 (다)는 학생 전용 급행 노선 운행으로 인해 통학 시간이 줄어 학생들의 시내버스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신문 기사이다. 따라서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학생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11~15] 문법

[11~12] 단어 형성 방식에 대한 수업 대화

지문해설 : 합성 명사의 형성 방식에 대해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하고 있다. 선생님의 설명은 합성 명사를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 용언의 활용형과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된 경우를 각각 구체적인 예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주제] 합성 명사의 형성 방식

11. 단어 형성의 원리

정답해설 : ㄷ의 ‘사대’는 ‘사범’과 ‘대학’에서 첫 음절만 따서 형성된 경우로, 선생님의 마지막 설명 중 ‘인터넷’과 ‘강의’가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 ‘인강’과 형성 방식이 동일하다. ㄹ의 ‘비빔냉면’은 용언의 활용형 ‘비빔’과 명사 ‘냉면’이 결합한 경우로, 선

생님의 설명 중 ‘건널목, 노림수, 섞어찌개’와 형성 방식이 동일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ㄱ의 ‘선생님’을 줄여 ‘쌤’을 만든 것은 앞말과 뒷말의 일부 음절을 떼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의 ‘개살구’는 접두사 ‘개-’와 명사 ‘살구’가 결합한 파생 명사이기 때문에 제시된 수업 대화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ㄷ의 ‘점잔’은 ‘점잖은 태도’를 뜻하는 명사인데, 형용사 ‘점잖다’로부터 만들어진 말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합성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시된 수업 대화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12.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잘못’은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①에서는 합성 명사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 앞말 ‘잘’과 뒷말 ‘못’은 모두 부사이므로 ①의 ‘잘못’은 부사와 부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의 예로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새것’은 관형사 ‘새’와 명사 ‘것’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수업 대화 중 ‘새색시’와 같은 형성 방식의 예이다. ③ ‘요사이’는 관형사 ‘요’와 명사 ‘사이’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수업 대화 중 ‘새색시’와 같은 형성 방식의 예이다. ④ ‘오늘날’은 명사 ‘오늘’과 명사 ‘날’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수업 대화 중 ‘논밭, 불고기’와 같은 형성 방식의 예이다. ⑤ ‘갈림길’은 용언 ‘갈리다’의 활용형 ‘갈림’과 명사 ‘길’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수업 대화 중 ‘건널목, 노림수, 섞어찌개’와 같은 형성 방식의 예이다.

13.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우리’는 대화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보기>의 대화 중 ㉠은 대화 참여자 ‘수빈, 나경, 세은’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의 ‘우리’ 역시 머리핀을 사러 같이 갈 수 없는 ‘수빈’을 포함한 대화 참여자 세 명을 모두 가리킨다. 이는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통해, 그리고 ㉠과 함께 쓰인 ‘셋이’, ㉡와 함께 쓰인 ‘다 같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의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은 나경 혹은 나경을 포함한 형제자매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 ‘우리’ 역시 수빈 혹은 수빈의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 ㉡와 달리, ㉣의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에는 청자인 수빈이 포함되지 않는다.

14.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의 ‘보습고’에 쓰인 선어말 어미는 ‘-습-’인데, 이는 듣는 이, 즉 ‘세존(世尊)’을 높이기 위하여 쓰인 것이 아니라 문장의 객체, 즉 ‘여래(如來)’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보습고’의 현대어 풀이가 ‘뵈고’인 점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중세 국어에서는 설명 의문문이나 판정 의문문이나에 따라 서로 다른 종결 어미가 쓰였다. ㉠은 의문사 ‘무슴’을 포함하는 설명 의문문이기 때문에 ‘-느뇨’가, ㉡는 판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느녀’가 쓰인 것이다. ㉠과 ㉡의 현대어 풀이에서는 동일한 종결 어미가 나타남을 볼 때 중세 국어의 이러한 특징은 현대 국어와 대비된다. ② ㉠의 ‘마를’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이, ㉡의 ‘벼를’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이 확인된다. ‘을’과 ‘을’은 선행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달리 선택되었기 때문에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어에서는 둘 모두 ‘을’로 실현됨을 볼 때 중세 국어의 이러한 특징은 현대 국어와 대비된다. ③ 중세 국어에서는 부르는 대상을 존칭하고자 할 때에 ‘世尊하, 大王하, 님금하’ 등에서 처럼 존칭의 호격 조사 ‘하’가 쓰였다. 호격 조사 ‘하’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으며, ㉠에서 ‘世尊하’를 ‘세존이시여’로 풀이하였듯이 ‘(이)여’와 ‘-시-’가 결합한 형태인 ‘(이)시여’가 존칭의 호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④ ㉡의 ‘보더시니’가 현대 어로는 ‘보시더니’로 풀이됨을 볼 때 선어말 어미 ‘-시-’와 ‘-더-’의 결합 순서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시간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의 예문에 쓰인 ‘-겠-’은 미래의 사건이 아닌 과거나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의 앞 문장에서 ‘-았-’과 ‘-겠-’이 함께 쓰였다는 점, ㉠의 뒤 문장에서 ‘지금’이라는 부사와 ‘-겠-’이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에 쓰인 ‘-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데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의 앞 문장에 쓰인 ‘-ㄹ’은 ‘올 것이다’와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 볼 수 있지만 뒤 문장의 관형사형 어미 ‘-ㄹ’은 ‘왔다’의 ‘-았-’과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의 ‘진학한다고’에 쓰인 ‘-ㄴ-’은 ‘내년에’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 ⑤ ㉣의 앞 문장에 쓰인 형용사 ‘작다’는 ‘오늘’과 함께 쓰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고 기본형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19] 독서

[16~19] 예술, '하이퍼리얼리즘'

지문해설 : 팝아트와의 대비를 통해 하이퍼리얼리즘의 특징을 설명한 글이다. 팝아트와는 달리 하이퍼리얼리즘이 현실성뿐만 아니라 사실성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후, 헨슨의 작품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를 예로 들어 하이퍼리얼리즘에서 어떤 기법들을 이용하여 실재에 가까운 재현을 이루어 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제] 하이퍼리얼리즘의 특성과 주로 사용되는 기법

16.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하이퍼리얼리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성'과 '사실성'을 중심으로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2문단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는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문단의 첫 문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 '현실성'이 높은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공통적으로 당시의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현실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사실성'은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것이다. 팝아트가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것은 대상을 실재와 같이 재현하였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팝아트는 사실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정확한 재현을 추구하는 하이퍼리얼리즘이 사실성이 높다. ③ 각주의 설명에 따르면 트롱프뢰유는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대상을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이퍼리얼리즘이 트롱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현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밀한 재현을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④ 주로 인쇄매체를 활용한 것은 팝아트이고,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였다. 또한 사실성을 추구했다는 내용은 하이퍼리얼리즘에만 해당하는 진술이다. ⑤ 팝아트는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는 반면,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다.

1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하이퍼리얼리즘의 사례로 제시한 헨슨의 작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3문단에서 ㉠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한 것은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의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은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되었으며 실물 주형 기법으로 사람의 크기와 형태를 똑같이 재현하고 여기에 가

발, 목걸이, 의상 등의 오브제를 덧붙여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② 4문단에서 ㉠은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통해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의 여자는 욕망의 주체이며,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여자는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한 것이고, 상품은 일상 속 그대로의 대상이다. ④ 4문단에서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18.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헨슨의 작품과 <보기>에 제시된 쿠넬리스, 코수스의 작품을 비교하여 미술에 대한 세 사람의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쿠넬리스는 「무제」라는 작품에서 실제 살아있는 말을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직접 체험을 통해 말에 대해 느끼고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쿠넬리스는 대상을 직접 제시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대상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대상을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재현의 방법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실물 주형 기법을 쓰는 것보다 실물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재현의 방법이라고 평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헨슨은 자신의 작품에서 실물 주형 기법 등을 통해 사람의 형태와 크기 등을 똑같이 만들어 냈다. 시각적인 면에서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쿠넬리스는 「무제」라는 작품에서 온기, 냄새, 소리를 통해 다양한 감각 체험이 가능하도록 실물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헨슨이 아니라 쿠넬리스가 미술 작품에서 다양한 체험을 강조할 것이다. ② 헨슨은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술의 역사적, 정치적 가치에 대해 강조했는지 여부는 제시문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④ 쿠넬리스는 「무제」라는 작품에서 감상자가 실물을 체험함으로써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코수스는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라는 작품에서 작가의 생각, 의도를 담아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을 한 공간에 배치하였다. 작가에 의해서 작품의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은 쿠넬리스가 아니라 코수스의 생각에 가깝다. ⑤ 코수스는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라는 작품에서 실제의 의자만이 아니라 의자 이미지(사진)와 의자의 개념도 함께 제시한다. 코수스는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19.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①와 ②의 ‘들었다’는 공통적으로 ‘어떤 범위나 기준,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속하거나 포함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남의 힘에 의지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①에서 ‘기대어’는 ‘몸이나 물건을 무엇에 의지하면서 비스듬히 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③ ㉢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③에서 ‘이어’는 ‘뒤를 잇따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 ㉣은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에서 ‘보는’은 ‘어떤 일을 맡아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⑤ ㉤은 ‘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의 ‘높다’가 사동으로 쓰인 것이다. ⑤에서 ‘높였다’는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고 우세하다.’라는 뜻의 ‘높다’가 사동으로 쓰인 것이다.

[20~22] 문학

[20~22] 현대시 - (가) 김현승, ‘플라타너스’ / (나) 정지용, ‘달’

지문해설 : (가)는 ‘플라타너스’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말을 건네며 플라타너스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을 투영하고 있다. 화자는 플라타너스를 꿈을 가진 존재, 넉넉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덕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으며 외로운 삶을 함께해 준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플라타너스와의 교감과 합일을 소망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유한성을 깨닫고 안타까워하며, 생의 마지막까지 플라타너스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 함께 이상을 지향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주제] 고독한 삶의 동반자인 플라타너스

지문해설 : (나)는 달빛에 비친 풍경의 아름다움과 그에 대한 감흥을 다양한 비유와 감각적인 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한밤중에 달빛에 이끌려 나온 화자는 홀로 마당을 바라보고 있는데, 달빛에 비친 마당의 모습은 마치 호수의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달빛을 받아 더욱 곱게 보이는 흰 돌, 달그림자로 인해 수묵색으로 짙게 보이는 녹음 등을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그 광경에 숨소리, 비둘기의 울음소리 등의 청각적 이미지와 오동나무의 꽃향기라는 후각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달밤의 고즈넉한 정취를 더하고 있다.

[주제] 달빛에 비친 조화로운 풍경에 대한 감흥

20.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매 연마다 ‘플라타너스’를 반복적으로 부르며 ‘플라타너스’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소망 등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작품의 초점을 ‘플라타너스’라는 중심 대상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에서는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가)의 1연에서 ‘파아란’이라는 색채어를 활용

하고 있으나, 이는 플라타너스가 꿈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를 통해 플라타너스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가)에서 ‘젖어 있다’, ‘늘인다’와 같은 현재형 진술을 사용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며, 이를 통해 플라타너스가 역동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에서 ‘하늘’, ‘별’ 등에 대해 지향하는 것은 상승적인 이미지와 연관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사물의 변화 과정이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2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홀로 되어 외로울 제’라고 인식하며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밤중에 달빛이 마당을 비춘 광경을 ‘홀로 보’면서 고요하고 정감 어린 정취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을 통해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가)의 화자 자신이 느낀 고독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이를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관조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나)의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을 통해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② ㉠은 (가)의 화자가 경험한 시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시련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나)의 화자도 ㉡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화자 자신의 과거 추억을 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가)에서 화자가 무기력한 태도를 느끼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을 통해 무기력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의 화자는 달밤의 풍경을 보며 정서적 감흥을 얻고 있으므로 담담한 태도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⑤ (가)의 화자는 ㉠에서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로 인해 현실에 대한 회의감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고, ㉡은 (나)의 화자의 현재 상황과 관련되므로 이를 통해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 ‘창’은 <보기>에서 언급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창’ 자체가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서 화자는 ‘영창’을 통해 달빛이 비치자 밖으로 나가서 ‘마당’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창’은 방안과 바깥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의 내면세계와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영창’ 자체가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고독한 여정인 ‘길’을 ‘플라타너스’와 함께 걷는 모습을 통해 사물인 ‘플라타너스’와의 교감을 보여 주며, (나)의 화자는 달빛에 비친 ‘흰 돌’을 의인화하여

‘이마’가 ‘유달리’ 곱다고 함으로써 사물에서 느낀 아름다움을 통해 사물과 교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가)의 화자는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까지 ‘플라타너스’와 함께하고자 하므로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삶의 여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밀물’처럼 밀려온 ‘달’을 접하고 마당에서 달빛에 비친 ‘한밤’의 정취를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곳을 ‘아름다운 별’이 있는 곳이라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마당’에 달빛이 가득한 모습을 ‘호수’에 비유함으로써 각각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할 때까지 ‘네 이웃이 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어 <보기>에서 제시한 구도의 ‘길’을 플라타너스와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오동나무 꽃’을 ‘못 견디게 향스럽다’고 함으로써 달빛에 어우러진 사물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26] 문학

[23-26] 현대 희곡 - 차범석, ‘불모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하루가 다르게 빌딩숲으로 변해 가는 서울 한복판의 모습과, 거기 둘러싸인 낡은 한옥에서 살아가는 최 노인 일가의 삶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1950년대의 어두운 사회상을 조명한 사실주의 희곡이다. 이 작품의 제목인 ‘불모지’는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 문명과 전통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피폐함, 가족의 해체와 세대 간 불화 등을 상징한다.

[주제] 근대화의 추진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족 해체와 세대 간의 갈등

23.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서울 한복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략’ 바로 다음 부분에서 경수의 대사 중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같은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서울 중심의 실제 지명을 노출함으로써, 최 노인이 자기 집 주변에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리는 상황을 개탄하며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역정을 내는 극중 상황에 사실감이 더해지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언어유희란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놀이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말 잇기 놀이, 어려운 말 외우기, 새말 만들기,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말장난 같은 것이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이러한 언어유희를 활용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집을 둘러싼 각 인물의 내면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장면의 전환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③ ‘경재’가 제복을 차려 입고 무대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복장을 통해 ‘경재’의 심리

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경재’의 등장, ‘복덕방’의 퇴장, ‘최 노인’의 퇴장과 등장 등에 대한 지시를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인물들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24.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㉔에서 ‘어머니’와 ‘경운’은 ‘예? 전세라구요?’라고 말하는 ‘경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수’와 마찬가지로 ‘최 노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었기에 놀라서 서로 쳐다보는 상황이다. 뒤에 나오는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뭇 하시게요?’라는 ‘어머니’의 대사,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라는 ‘경운’의 대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최 노인’은 주변에 들어서게 된 높은 건물들 때문에 ‘흔한 햇볕도 안 드는 집’이 되어 버린 집에서 ‘화초며 고추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사실을 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㉑과 같이 ‘말세야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② ‘경재’는 변화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옛날 일만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향해 ‘웅변 연사의 흥을 내며’ 장난스러운 훈계를 한다. 일반적인 대화에 사용하는 말투가 아니라 웅변을 하는 어조로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자연스레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③ 아들인 ‘경수’의 무례한 말에 화가 난 ‘복덕방’이 흥정을 그만두고 나가자 ‘최 노인’은 ‘김 첨지! 김 선생!’이라고 급히 부르며 따라 나간다. 그 앞의 대화에서 ‘최 노인’은 ‘복덕방’을 계속 ‘김 첨지’라고 불렀다. 이때의 ‘첨지’는 대체로 나이 많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그 ‘김 첨지’가 기분이 상하여 흥정을 깨려 하자 그의 마음을 돌려 보고자, ‘첨지’ 대신에 그보다 좀 더 대우하고 존중하는 느낌을 주는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고쳐 부른 것이다. ⑤ ‘최 노인’이 갑자기 화초밭을 짓밟기 시작하자 화들짝 놀란 ‘어머니’는 말리려고 황급히 뛰어내리느라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다급한 심리가 행동을 통해 제시된 것이다.

2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㉔는 집을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최 노인’의 계획을 ‘어머니’가 못마땅해 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의도를 짐작도 못 하는 것이다. 그리고 ㉔로 인해 ‘최 노인’이 계획을 변경하고 있지도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고려해 가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경재’의 말에 대해 ‘최 노인’은 ㉔와 같이 말한다. 이는 그가 예전과 달라진 지금의 각박한 세상을 말세라고 볼 만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들은 ‘경재’는 옛날 일이 무슨 소용이냐며 오늘은 오늘이라고 말한 뒤, 웅변 연사의 흥내를 내면서, 역사는 설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변화무쌍하다는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다소 익살스럽게 들릴 듯한 연설을 하는데, 이것은 아버지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복덕방’은 ㉔와 같이 말하는 ‘경수’의 태도가 노인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느껴서 기분이 완전히 상하고 말았으며, 이는 전세 계약을 위한 흥정의 중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③ ‘경수’는 아버지 ‘최 노인’이 집을 팔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 노인이 ㉔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음을 알게 되었다. ⑤ ㉔는 ‘경운’도 ‘경수’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최 노인’이 집을 팔려 하는 줄 알았다는 말이다. 이를 들은 ‘최 노인’은 ‘흥! 너희들은 모두 한속이 되어서 어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이라며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6.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최 노인’은 좌우를 가로막은 건물들 탓에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작물들이 도무지 자라질 않는 상황에서도 화초밭을 정성껏 가꾸어 왔다. 그의 마지막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화초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화초밭은 ‘불모지’가 될 지경이고 집을 전세 놓으려던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답답함, 분노, 상실감과 좌절감 등을 느낀 ‘최 노인’은 화초밭을 마구 짓밟으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라고 외친다. 그러므로 화초밭은 ‘최 노인’이 자기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허망해하는 감정이 드러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앞부분에서 경재가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화초밭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들이 화초밭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② 화초밭을 짓밟는 행위가 어떤 면에선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그것은 울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집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이란 말은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최 노인’은 함부로 짓밟고 ‘어머니’는 그 행동을 말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하면 적절할 수 있다. 한편 화초밭에 대한 ‘상반된 행동’이란 말이 그것을 소중히 가꾸는 행동과 함부로 짓밟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두 인물’이 아니라 ‘한 인물’의 상반된 행동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 된다. 그리고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든 화초밭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④ ‘최 노인’은 현재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자책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가 화초밭을 짓밟는 것은 자책으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 분노나 절망으로 인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27~32] 과학+인문,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 역학과 비고전 논리'

지문해설 : 이 글은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고전 역학과 달리 양자 역학은 미시 세계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을 설명한 후, 이러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한다는 견해가 논리학에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을 시계 방향으로의 회전과 반시계 방향으로의 회전이 공존하고 있는 미시 세계의 팽이를 가정해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이 미시 세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논리학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과 관련해서는 프리스트의 주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프리스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하면서 '참'과 '거짓'만이 아니라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이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있는 LP를 제시하였다.

[주제] 두 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함을 보여주는 양자 역학과 두 개의 상호 배타적인 진리치가 공존하는 비고전 논리

2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의 앞 절을 보면 아인슈타인은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에 적용하면, 아인슈타인은 관찰(달을 보는 일)이 물체(달)의 존재 상태를 결정한다는 점을 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에는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관찰 이전에도 존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선지의 진술은 양자 역학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관찰하고 있으므로 존재한다.'는 것은 관찰 자체가 달의 존재 상태를 결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② 1, 2문단에서 양자 역학은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2문단은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거시 세계와 달리~'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시 세계의 팽이와 미시 세계의 팽이를 대조하여 설명하면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하며 관찰을 통해 그 상태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미시 세계에 국한하였다. 즉 거시 세계에서도 관찰을 통해 상태가 결정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자 역학의 관점을 수용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선지의 진술은 양자 역학의 해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관찰 이전에는 미시 세계의 팽이가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지를 말할 수 없는데, 선지의 진술은 이와 같은 논리이기 때문이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관찰에 의해 물체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견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관찰'에 의해 존재 여부의 확률을 따지는 것

자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적절하다.

28.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2문단을 보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네 자리의 이진수를 4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해도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2문단의 설명대로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 개가 존재하므로, 선지에 제시된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2^4 개, 즉 16개이다. 따라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문의 3문단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가 상태의 공존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보기>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는 하나의 비트에 0과 1 모두를 담을 수 있어서 연산 처리 횟수를 줄임으로써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지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② <보기>의 2문단을 보면 일반 컴퓨터는 2비트를 이용하여 두 자리 이진수를 연산할 때 4번, 즉 이진수의 개수와 같은 연산 횟수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선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컴퓨터로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면 세 자리의 이진수 개수만큼인 2^3 번, 즉 8번의 연산 횟수가 필요하다. 그에 비해 양자 컴퓨터는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보기>의 1문단에 따르면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처리 횟수와 연산 속도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로 처리할 때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8배 빠르다. ③ 한 자리의 이진수는 0과 1로 2개가 있다. 따라서 1비트를 이용해 이를 처리하려면 일반 컴퓨터는 2번의 연산 횟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다르다. 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횟수는 한 번이고,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여섯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횟수도 한 번이다. 따라서 두 속도는 같다.

2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자기 지시적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다. 선지의 진술로 볼 때 선지에 제시된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문장은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따라서 ‘이 문장’도 자기 지시적 문장이므로 거짓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 중 예시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면, 선지의 문장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것을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 아니므로 자기 지시적 문장이 아니다. ③ 4문단을 보면 이치 논리는 ‘참’ 또는 ‘거짓’의 진리치를 가지며, 자기 지시적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다. 선지에 제시된 문장은 거짓말쟁이 문장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갖지만, 이치 논리에서도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다만, 이치 논리로는 그 진리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뿐이다. ④ 4문단에서

자기 지시적 문장의 예로 든 것 중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문장은 고전 논리에서도 진리치를 ‘참’으로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이 문장은 모두 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 있다면, 실제 음절은 열일곱 개인데 자기 지시적 문장에서 여덟 개라고 했으므로 고전 논리에서는 이 문장에 진리치를 ‘거짓’으로 부여할 것이다. ⑤ 5문단에서 비고전 논리를 주장한 프리스트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이 거짓말쟁이 문장은 아니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0. 전제, 결론 추론

정답해설 : 지문의 6문단에 따르면,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는데, 전건 긍정 규칙은 전건인 P가 ‘참’이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 따라서 선지에 제시된 것처럼 조건문 ㉠과 그것의 P가 ‘참’이면 Q는 반드시 ‘참’이다. 즉,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니고 있다. LP에서는 조건문 ㉠의 전건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 Q가 ‘거짓’이면 조건문 ㉠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조건문 ㉠과 조건문의 전건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인 경우 Q는 ‘거짓’이 된다. ③ 선지에서 제시한 내용은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할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LP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고전 논리에서는 ㉠과 P가 참이면 Q는 반드시 참이다. 따라서 ㉠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가 ‘거짓’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A는 이치 논리인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는 물론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A는 (ㄱ)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B는 LP와 프리스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만 B도 (ㄱ)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은 미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관찰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ㄷ)과 (ㄴ)은 거시 세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때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B는 (ㄷ)과 (ㄴ)에 대해서는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로 판단할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로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ㄱ)이 ‘참’이라고 주장할지 ‘거짓’이라고 주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두 개의 진리치 외에는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B는 LP와 프리스트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인정한다. (ㄱ), (ㄴ)은 미시 세계에 해당하는 전

자의 관찰 이전 상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연결된다. 따라서 (ㄱ)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ㄷ)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③ (ㄷ)과 (ㄹ)은 모두 거시 세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A와 B 모두 (ㄷ)이 ‘참’일 때 (ㄹ)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④ B는 (ㄱ), (ㄴ)이 미시 세계에서의 관찰 이전 상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3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의 ‘지니게’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게’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것을 한자어로 바꿀 경우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다’는 뜻의 ‘보유(保有)하다’ 정도가 적절하다. ‘소지하다’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상식적인 생각’들이 물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㉓는 ‘따르면’으로 사전적 의미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면’에 해당하고, 문맥적 의미는 고전 역학에 ‘근거하면’이라는 뜻이므로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는 뜻의 ‘의거(依據)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② ㉕는 ‘알게’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존재, 상태에 대해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게’에 해당하고, 문맥적 의미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는 뜻의 ‘인지(認知)하다.’는 적절하다. ④ ㉖는 ‘던진다.’로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문제 따위를 제기하다.’에 해당하고, 문맥적 의미도 같으므로 사전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다.’는 뜻의 ‘제기(提起)하다’는 적절하다. ⑤ ㉗는 ‘들어맞는다.’로 사전적 의미는 ‘정확히 맞다.’이고, 문맥적 의미도 같으므로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는 뜻의 ‘부합(符合)하다’는 적절하다.

[33~37] 문학

[33-37] 고전 복합:

고전 소설- (가) 작자 미상, ‘춘향전’, 고전 시가- (나)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지문해설 : (가)는 조선 시대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하여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이다. 표면적으로는 양반 자제 이몽룡과 퇴기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려는 인간 해방의 주제 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춘향과 이몽룡이 신분의 격차를 뛰어

어느 사랑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정절을 지키려는 춘향의 굳은 의지와 탐관오리를 혁파하는 이몽룡의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제시문은 부친의 승진에 따라 이몽룡이 남원을 떠나는 부분으로, 이별을 슬퍼하는 춘향이 이몽룡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주제] 춘향의 굳은 절개와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 안타까운 이별로 인한 비애감

지문해설 : (나)는 판소리 ‘춘향가’의 일부분을 노래로 만든 조선 시대의 잡가이다. 당시 인기 있었던 판소리 ‘춘향가’에서 청중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분인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 장면을 따로 떼어 노래하고 있다. 한편, 잡가는 조선 시대 문학 작품 중 일부를 수용하여 당대의 정서를 표출하였고, 또 그중 일부가 국악, 민요 형식으로 현대에 계승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선 시대 문학이 현대로 계승되는 과도기적인 문학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이별로 인해 춘향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비애감

33.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진시황의 분서 사건, 박랑사와 관련된 사건 등의 고사가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별 상황에 직면한 ‘춘향’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 ‘춘향’이 당면한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도련님’은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으로 인한 이별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황의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다. ② ‘이런 일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였다. ③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제비’라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할 수만 있다면 이별의 억울함을 천상적 존재인 옥황에게 호소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3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㉔의 앞부분인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 지게 하겠지요’를 고려할 때, ‘판결문’에는 춘향이 송사에 패소하는 내용, 즉 ‘도련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결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에서 알 수 있듯이, ‘명문’을 쓴 것은 춘향이 아니라 ‘도련님’이다. ②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 하겠소’에서 알 수 있듯이, ‘소지’에는 ‘춘향’의 억울함이 담겨 있을 것이다. ③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키거든’에서 알 수 있듯이 ‘편지 한 장’은 ‘도련님’이 ‘춘향’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사또에게 재판에 대해 청탁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도련님’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내용, 즉 자신의 죄가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⑤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상언’을 쓸 때는 ‘순사또’의 힘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춘향’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쓸 것이다.

3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백 년 살자 언약할 때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 되자더니’, ‘이제 와서 이별이란 웬 말이오’를 고려할 때, ④의 표현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맹세가 깨져 버린 상황에 대한 ‘춘향’의 심화된 슬픔이 담겨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한 이해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휘휘칭칭 감아쥐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를 고려할 때,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삼단 같이 좋은 머리’채를 잡혀서라도 ‘이 도령’을 따르겠다는 ‘춘향’의 말은 자신의 머릿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두어 두고는 못 가시리다’를 고려할 때, 문맥상 ⑥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라는 극단적 상황을 통해서라도 이별을 막고 싶은 ‘춘향’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③ ‘춘향’이 이별을 막기 위해 ‘도련님’이 탄 말의 꼬리를 잡고, 말은 춘향의 가슴을 차는 모습은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을 희화화한 면은 있지만, 이것이 현실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산첩첩 수중중한데’를 고려할 때, ‘이 도령’과 이별하게 되면 그와의 재회가 어려울 것임을 ‘춘향’이 탄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36.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나)에는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슬픔을 하소연하는 ‘춘향’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에 대해 말하는 ‘춘향’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춘향’의 치밀한 면모도 확인하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춘향’은 자신의 억울함을 ‘원님, 순사또, 형조, 한성부, 비변사’ 등에 하소연하여도 그들은 같은 양반인 ‘도련님’의 편을 들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분 제도가 있었던 당대를 살아가던 양반에 대한 민중들의 의식을 ‘춘향’의 면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② ‘소지, 소장’ 등을 통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이에 패소하더라도 ‘팔만장안 억만가호’에 걸식하여 종이를 구해 임금께 ‘상언’을 쓰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바탕으로 ‘춘향’의 적극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④ ‘할 수 없이’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이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주안상을 차려 송별연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이별 상

황을 받아들이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⑤ (가)와 (나) 모두에서 ‘춘향’은 ‘이별’이라는 글자를 만든 사람을 자신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천하장사 항우’로 하여금 이 글자를 깨치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이별 상황에 놓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복받친 감정을 토로하는 ‘춘향’의 걱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37.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B]에는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 이별이로다 춘향이가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라고 말하는 서술자 역할을 하는 화자와 ‘도련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리다 ~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라고 말하는 ‘춘향’의 역할을 하는 화자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할이 다른 두 화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춘향’과 ‘이 도령’이 이별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것을 <보기>에 제시된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춘향’은 자신에게 닥친 이별의 안타까움을 ‘생논 나을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등장인물의 겪고 있는 내면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장된 표현을 <보기>에서 언급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② [A]에서 ‘춘향’은 이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도련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이 거듭되어 진술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보기>에서 언급한 분량을 늘리려는 잡가의 담당층의 의도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 할 수 있다. ③ [B]의 첫 행의 경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별이라네’로 시작하고 있다. 이런 집약적인 표현은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도입 방식을 <보기>에서 언급한 청중을 작품 내용 안으로 빠르게 끌어들이려는 전략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한 작품 속에서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면 그 의미나 정서가 강조되기 마련이다. [B]에 표현되어 있는 ‘못 가시리라’의 반복을 <보기>에서 언급한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38~42] 독서

[38~42] 사회, ‘집합 의례’

지문해설 : ‘집합 의례’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과정 및 양상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글이다. 뒤르켐에 따르면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이를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그는 또한 현대 사회에서 집합 의례가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개인들이 서로 결

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겼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꾼 기능주의 이론을 주창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위기 시기에는 잠재해 있던 가치가 부상하여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알렉산더는 파슨스, 스멜스와 달리 집합 의례가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거나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 공연론’을 통해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 ‘집합 의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

38.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중심 화제인 ‘집합 의례’를 설명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데, 뒤르켐의 이론이 파슨스와 스멜서에 의해 보완되고 있으며,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의 한계가 알렉산더의 견해로 보완되고 있으므로 중심 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집합 의례에 대해 학자들이 선행 연구를 수용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므로 주요 학자들이 이에 대해 합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집합 의례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파슨스, 스멜서와 알렉산더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상반된 견해를 절충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 ⑤ 집합 의례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9. 중심 화제 파악

뒤르켐은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므로 공동체 성원들이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집합 의례를 통해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집합 의례를 통해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으로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 ⑤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가 행해진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0. 세부 정보 파악

파슨스와 스멜서의 견해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가치, 즉 성스러움이 사회적 삶 아래에서 잠재되어 있다가 위기 시기에 부상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가다가 위기 시기에 그들의 관심을 가치, 즉 성스러움에 두는 것이다. 이는 관심이 속에서 성으로 옮겨감을 나타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해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는 성이 아니라 속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 것 역시 성이 아닌 속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위기 시기에 봉착하게 되면 집합 의례를 통해 흐트러진 항상성을 회복하려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위기 시기에서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기 시기에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1.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파슨스, 스멜서는 집합 의례의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유기체가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처럼 결과가 정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알렉산더는 집합 의례는 현대 사회에서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역시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파슨스, 스멜서는 집합 의례의 과정을 거치며 사회의 통합이 회복될 것이라 보았다. 사회 통합이 회복된다는 것은 도덕 공동체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①과 달리’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집합 의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알렉산더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집합 의례를 유기체의 생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 것은 파슨스, 스멜서이다. 알렉산더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파슨스, 스멜서는 위기 시기에 사회적 삶 아래 잠재해 있던 성이 부상하며 속보다 우선시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알렉산더 역시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로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구체화한 대본 등을 들고 있으므로 성과 속의 분류 체계 없이 집합 의례가 일어난다고 본 것이 아니다.

4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알렉산더의 견해에 따르면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는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다. <보기>의 사례는 대본, 배우, 미장센 등의 공연 요소들이 존재하는 사회적 공연으로 볼 수 있는데, 소각장 유치에 대해 A시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동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요소들 간의 융합이나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공통된 가치를 주민들이 중시하게 된다면 가치의 일반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려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소각장의 유치를 둘러싼 논란은 A시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보기>의 내용을 통해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중앙 언론은 상징적 생산 수단으로, 경찰은 사회적 권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징적 생산 수단과 사회적 권력에 의해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지역 경제 발전에 동의하고 있지만 소각장의 유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43~45] 문학

[43-45] 현대 소설 - 임철우, ‘눈이 오면’

지문해설 : 이 소설은 급속하게 추진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상실감을 다룬 작품이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억척스럽게 키워 오다가 장남마저 일찍 여윈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그’(찬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마을인 ‘꼬두메’를 찾아 나선다. 이 여로의 사이사이에 과거 회상 장면이 삽입되면서 고향에 얹힌 서럽고 그리운 추억들이 펼쳐진다. 작가의 비판적 현실 인식이 서정적 문체로 표현된 작품이다.

[주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의 아픔

43.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특정 인물, 즉 ‘그’(찬우)가 회상하는 과거의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중략’ 이전은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고, ‘중략’ 이후는 어머니의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하던 두 달 전 늦가을에 대한 회상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략’ 뒷부분에 ‘그날따라 겨울이 전에 없이 일찍 앞당겨 찾아온 듯한 늦가을 날씨로 밝은 유난히 썰렁했다.’ 같은 부분이 있어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시간적 배경과 분위기를 제시한 것일 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학교 운동장, 빈민 구호소 식당, 집 등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경 묘사로 인해 사건 전개가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글은 전지적 성격을 지닌 서술자가 ‘그’의 내면 심리, 주관적인 느낌까지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서술의 초점은 계속 ‘그’에게 맞추어져 있으므로 다양한 인물로 서술의 초점을 옮겨 가며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㉔는 ‘어머니’가 데리고 간 빈민 구호소 식당에서 ‘그’에게 먹이는 ‘한 그릇의 국수’이다. ‘어머니’에게 이끌려 빈민 구호소에 들어서게 될 때 ‘그’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아들인 자신을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다는 냉랭한 어머니의 말을 듣는다. 마지못해 국수를 먹던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고, 가난한 삶의 고난을 환기하는 어머니의 낡은 먹고무신을 내려다보면서 목구멍이 빠근해져 오는 것을 느낀다. ‘그’는 방금 ‘어머니’가 자신을 무서운 힘으로 잡아끌어 구호소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돌아가신 아버지 애길 꺼내며 혼을 내서 자기를 울게도 만들었지만, ‘어머니’의 속마음은 가난의 설움, 가난 때문에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 자식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 같은 것이었음을, 국수를 먹으며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국수를 먹기 전까지 ‘그’와 ‘어머니’는 표면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수를 먹다가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본 ‘그’는 목구멍이 빠근해져 옴을 느낀다. 따라서 국수가 둘 사이의 갈등을 지속시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그때 국수를 먹은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빈민 구호소 식당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국수라는 음식은 싫어한다고 했을 뿐, ‘그’가 국수 때문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④ 국수를 먹게 된 것은 ‘그’가 ‘어머니’를 배려했기 때문이 아니다. 만일 여기서 국수가 배려를 드러내는 매개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에 대한 ‘어머니’의 배려일 것이다. ⑤ 국수를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슬픔과 설움이 북받쳐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으므로 국수를 통해 ‘어머니’가 위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5.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그’가 ㉔을 듣고 불길함을 느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그’가 불길함을 느꼈다는 진술은 ‘중략’ 바로 다음, 이제는 노인이 된 ‘어머니’한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부분에 나온다.) 국수를 먹던 어린 ‘그’가 젓가락을 딸각 놓는 행동을 한 것은 ㉔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아들을 향해, 그렇게도 배가 고프더냐고 냇두리 같은 말(㉔)을 한

‘어머니’는 ‘그’를 이끌고 구호소 식당으로 간다. 그리고 자식을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 없다며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냐는 말 ㉡로 타박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아마도 ‘그’가 배고픔 때문에 구걸이나 도둑질에 해당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리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호소 식당을 보고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죄책감으로 인해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그 전까지, 적어도 ‘그’가 결혼한 후에는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른 적이 없었던 ‘어머니’는 ㉢에서 처음으로 ‘찬우야!’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 음성은 평소의 ‘보이지 않는 따뜻함과 부드러움’ 대신 ‘어딘가 냉랭하면서도 들떠 있는 듯한 건조함’이 배어 있었다. 이 ‘생경한 이질감’으로 인해 ‘어머니’의 변화를 또렷이 느끼게 된 ‘그’는 ‘내심 섬찔했’다고 하였다. ㉣ ㉤에도 드러나 있듯이 ‘그’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에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자고 말한다. 이는 이상한 변화가 찾아온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아 계시던 과거를 현재와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며, 그로 인해 ‘그’는 ‘너무 당황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른 쉽사리 가려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 9월 모평 이후 스타강사의 30일 마무리 전략!

윤혜정 선생님이 꼭! 잡아주는 30시간 완성 프로젝트!

윤혜정의 파이널 프리포즈 국어

"어려운, 힘든데요! 지금 이 순간에 '진정한'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갈 수 있는 파이널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서 있게 될 거예요."

1500여개의 수강생 댓글이 증명하는 윤혜정 파워!

- 믿고 보는 윤혜정
- 마지막으로 국어를 꼭 정리해주는 느낌이다 정말 최고다
- 이해가 속속 되는 진짜 알 그대로 프리미엄 강의예요!

4 이상인 고민을 무의미하다!
국어 마스터로 가는 지름길!



■ 고철의 문항으로 마지막 실전 능력을 폭발시켜라!

모든 개념을 총 동원하여
실전 감각을 폭발시켜라!

FINAL 실전모의고사

■ OMR 답안지로 연습을 실전처럼!

만점마무리와 함께라면 실력과 자신감은 MAX!

만점마무리 봉투형 모의고사

■ 수능 국어 신유형&고난도 문항 완전 정복!

수능 국어 신유형 완전정복!

수능연계완성